

잔류 조직 보존 술 식을 이용한 관절경적 단일 다발 및 이중 다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결과 비교

Clinical Results after Arthroscopic Single Bundle and Double Bundle PCL Reconstruction Preserving Remnant Fibers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인천의료원 정형외과학교실¹

이정환¹ · 윤경호 · 배대경 · 송상준 · 조형준

서 론

후방십자인대 파열 시 잔류 조직 보존술식을 이용한 단일 다발 및 이중 다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보강술)에서 이학적, 정량적 평가를 통해 슬관절의 안정성과 기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보강술을 시행하였던 77명의 환자 중 동측에 골절, 연골 손상, 다발성 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 재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반대쪽 슬관절에 인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53례의 슬관절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최소 2년 이상 추시 관찰하였다. 단일 다발군이 25례, 이중 다발군이 28례였고 수술 전, 후의 관절 운동 범위, 후방 전위 방사선 촬영, Tegner 점수, Lysholm 점수, IKDC 주관적 및 객관적 평가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수술 시 평균 나이는 단일 다발군의 경우 29.7세, 이중 다발군의 경우 27.4세였고 수상 후 수술까지 시간은 각각 36.5개월, 34.9개월, 평균 추시 기간은 31.3개월, 33.5개월이었다. 수술 전, 후의 관절 운동 범위, Tegner 점수, Lysholm 점수, IKDC 주관적 평가법 상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p>0.05$). 후방 전위 방사선 촬영상 건측 슬관절에 비교해 후방 전위 차이는 단일 다발군은 술 전 평균 12.0 mm에서 술 후 평균 4.5 mm로 호전되었고 이중 다발군은 술 전 평균 12.2 mm에서 술 후 평균 3.1 mm로 호전되었다($p<0.001$, $p<0.001$). 수술 전 후방 전위는 양 군간의 차이는 없었으나($p>0.05$), 최종 추시 시에는 이중 다발군에서 후방 전위가 더 적게 관찰되었다($p=0.048$). 최종 추시 시 IKDC 객관적 평가법 상 단일 다발군에서 정상이 6례(24.0%), 거의 정상이 12례(48.0%), 비정상이 6례(24.0%), 매우 비정상이 1례(4.0%)였고 이중 다발군에서는 정상이 15례(53.6%), 거의 정상이 9례(32.1%), 비정상이 4례(14.3%)로 이중 다발군에서 더 많은 정상 예를 보였다($p=0.028$).

결 론

후방십자인대 과열 시 이중 다발 보강술군은 단일 다발 보강술군에 비해 후방 전위 방사선 촬영 및 IKDC 객관적 평가법 상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색인 단어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잔류 조직 보존술식, 단일 다발, 이중 다발